

진흥회 소식

中國, 重電機器 수출 촉진단 파견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발전 및 송배전 설비를 확충하여 대규모 중전기기 수요가 전망되는 중국에 민관합동의 수출 촉진단을 파견한다.

진흥회 李壽珍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LG산전(주), 효성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 보국전기공업(주) 등 주요 중전기기 업체 11개사와 통상산업부, 한국전기연구소 관계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이번 수출 촉진단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7일간)까지 북경, 북진성 등 2개 도시를 방문, 수출 상담 및 시장조사 사업을 벌인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업계의 진출이 유망시되는 지역을 선정, 수출시장 개척 활동을 벌이는 이번 개척단은 중국 電力工業部와 북경 電力集團公司 등을 방문하여 장기 전원개발 계획 및 구매 계획등을 조사하며 현지 외국 진출업체의 생산설비 및 중국 중전기기 제조공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98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의 홍보와 함께 중국 중전기기 관련업체의 참여 유도 및 바이어 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중국 중전기기 수출촉진단 파견 계획

1. 목 적

- 중국의 전력사업 현황 및 중전기기 시장 동향등 전원개발 사업 정보수집
- 중국의 전기관련 규격 및 전력기자재 구매방법 등 국제입찰 및 조달방법 정보수집
- 지역별 수출상담회를 통한 수출 다변화 촉진 및 합작투자를 통한 동남아 지역 공동진출
- 중국 전력공업부 등 정부기관 방문을 통한 한·중 전기공업 협력방안 모색
- '98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 홍보
- 대중국 비교우위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촉진의 계기마련

2. 파견개요

- 명칭 : 중국 중전기기 수출촉진단

- 파견지역 : 북경, 복건성 등 2개 도시
- 파견기간 : '97. 11. 16~11. 22(7일간)
- 수출촉진단 구성 : 정부, 업계, 진흥회 등 16명
- 한·중 전기공업 협력 방안 상담
- 중국 중전기기 제조업체 견학을 통해 생산설비 및 제조기술 비교
- 전기공업 비교우위 및 열세품목을 발굴조사
- 합작 투자를 통한 동남아 진출 방안 모색

3. 주요 활동계획

- 중국 전력공업부 및 전력집단공사 방문

<참가자 명단>

번호	업체명	직위	성명	비고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부 회장	이수진	단장
2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장	이우공	조정관
3	서창전기통신(주)	기술고문	윤계웅	
4	유성정유공업사	대표	이창남	
5	한국정수공업(주)	이사	윤기종	
6	"	부장	박형훈	
7	(주) 광명전기	차장	류현규	
8	LG산전(주)	대런Project Team장	김영덕	
9	보국전기공업(주)	대표이사	곽종보	
10	대연전자(주)	영업이사	이재민	
11	일진전기공업(주)	부장	오학근	
12	이천전기공업(주)	부장	김홍길	
13	효성중공업(주)	부장	차능빈	
14	현대중공업(주)	부장	김치훈	
15	한국전기연구소	부장	강영식	
16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과장	박병일	총무